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738호 1판 (음력 4월 16일) 2014년 5월 14일 수요일

우암학원 창학64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N TECHNO UNIVERSITY

전남 기초長 공천 막판까지 '갈팡질팡'

새정치, 민주계·안철수계 '계파 챙기기'로 뒤집기 난무

경선후보 42명 중 9명 탈당 … "무소속 출마" 후폭풍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후보를 최종 확정했으나 무원칙과 뒤집기가 난무하는 등 난장판 공천작업이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민주계와 안철수계가 '계파 챙기기' 경쟁을 벌이면서 개혁공천이 실종되는 등 창당시 모토로 내세운 '새 정치'를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지난 11일 전남도당 집행위원회를 통과했던 42명의 경선후보 중 9명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2명은 경선 불참을 선언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3명이던 영암군수 경선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 김재원·전동평 후보 간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정키로 했다.

또 단수추천됐던 여수시장과 화순군수 후보도 경선을 통해 선출키로 했다.

여수시장 후보의 경우 도당 1차 심사에서는 김영규·주철현 후보 간 경선, 도당 최종 심사에서는 주철현 후보 단수 추천, 13일 새벽 최고위 회의에서는 김동채·주철현 후보 간 경선으로 변했다가 이날 오후 최고위 회의에서는 김영규·김동채·주철현 후보 간 3자 경선으로 최종 결정되는 등 뒤집기가 계속됐다.

화순군수 후보의 경우도 도당 1차 회의에서는 무공천, 최고위 회의에서는 경선, 도당 최종 회의에서는 구충곤 후보 단수 추천 등으로 변화했으나 13일 최고위 회의에서는 구충곤·김성인 후보 간 경선으로 최종 결정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계속됐다.

최고위원회는 나머지 19개 시·군에 대해서는 전남도당이 지난 11일 최종 의결한 경선후보를 확정했다.

강진군수 강진원 후보, 곡성군수 유근기 후보, 장성군수 김양수 후보 등 3곳은 후보를 최종 확정했고 목포시장 경선후보는 이상열·박홍률·배용태, 순천시장 기도서·허석·안세찬, 광양시장 김재무·이정문·김현옥·강춘석, 나주시장 김대동·전준화·강인규·홍석태 후보 등을 확정했다.

또 구례군수 경선후보로는 박인환·서기동, 장흥군수 정종순·이명흠, 해남군수 박철환·윤광국, 진도군수 김희수·이동진, 무안군수 김철주·김호산 후보 등을 확정했다.

담양군수 경선후보는 최형식·유창종, 고흥군수 송귀근·박병종, 보성군수 하승완·이용부·정종해, 완도군수 신우철·김신, 영광군수 정기호·김준성, 함평군 안병호·노두근 후보, 신안군수 남상창·박석배·박우량 후보를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당의 이 같은 오락가락 결정에 반발해 박홍률(목포)·김일태(영암)·정종순(장흥)·유창종(담양)·송귀근(고흥)·김준성(영광)·남상창 김승규(신안)·노두근(함평) 후보 등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김대동·홍석태 후보(나주)는 경선 불참하고 전준화 후보로 단일화를 선언했다.

따라서 후보가 확정된 강진·곡성·장성뿐만 아니라 장흥·담양·고흥·영광·함평군수 후보 경선도 없어져 모두 8곳은 사실상 후보를 확정했다.

한편,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부터 여론조사 경선에 들어가 15일 재심일 거쳐 16일에 공천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정책선거 약속합니다" 13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협약식'에서 광주시장 후보들이 공정선거를 다짐하며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정재,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통합진보당 윤민호, 노동당 이병훈, 무소속 강운태·이병완·이용섭 후보. /최현배기자 choi@

알 림

광주일보사는 5·18 광주민중항쟁 34주기를 맞아 연극 '푸르른 날에'를 공연합니다.

5월 항쟁 속에서 꽃핀 남녀의 사랑과 그 후 30년의 인생 역정을 그린 '푸르른 날에'는 5·18이라는 아픈 역사를 눈물과 웃음이 어우러진 대사와 가벼운 터치로 풀어낸 '21세기 신파극'입니다.

이 작품은 2011년 5월 남산 드라마센터 초연 당시 그해 대한민국연극상 작품상 등 주요 연극상을 휩쓸었으며 2012년·2013년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차범석 희곡상 수상작인 정경진의 희곡을 고선웅 연출이 재해석한 '푸르른 날에'는 신파와 통속을 넘나들지만 결코 5·18의 진정성을 놓치지 않는 작품으로 초연 멤버가 그대로 참여, 극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5월 광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푸르른 날에' 공연에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주최 : 광주일보사, 광주MBC, KBC광주방송, KCTV광주방송
■티켓 : R석 4만5000원, S석 3만5000원, A석 2만5000원
■제작 : 신시컴퍼니 ■예매 : 티켓 마루, 인터파크 ■문의 : 062-220-0541

光州日報社

姜·李 단일화 협상 시작

〈강운태·이용섭〉

TF팀 곧 구성…시기·방법 협상

姜 "20~28일" 李 "16일 전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의 단일화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 후보들은 조만간 단일화 TF팀을 구성해 단일화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협상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단일화 시기에 대해서는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단일화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무소속 강운태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는 수단이 돼야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기는 단일화'를 거듭 강조하고 "선거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단일화 시점은 사전투표일(30~31일)과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20일과 28일 사이가 가장 좋다고 하는데 그 분석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용섭 후보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6일까지는 단일화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오늘 중 이용섭 후보를 만나 입장을 들어보고 내일부터라도 단일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일화를 위해서는 검증절차가 필요한데, TV토론회나 연설회를 열어 후보의 생각을 시민들에게 전달한 뒤 단일화하는 게 정당한 절차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용섭 예비후보는 "사전 투표일 등을 감안해 오는 16일 후보 등록 마감일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단일화 방안을 강 후보에게 모두 일임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후보는 "16일 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두 후보간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강 후보와 이 후보는 13일 저녁 회동을 갖고 단일화를 위한 TF팀 구성과 단일화 시기 및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탑승 476명 구조 172명
실종 28명 사망 276명
※ 세월호 참사 28일째
13일 오후 8시 현재 ▶관련기사 6면

서울·경기·부산·경북에 '오월 민주학교' 열려

5·18 교육 전국화 첫 발

서울·경기·부산·경북지역에서 '오월 민주학교'가 열린다. 5개 학교에 불과하지만 호남이 아닌 타지역에서 본격적인 5·18 교육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광주시교육청은 13일 5·18교육 전국화를 위해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와 함께 5·18민주화운동과 오월정신 계승을 위한 '오월 민주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월 민주학교는 전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5·18민주화운동을 바르게 알고 오월정신을 이어받아 정의·평화·인권을 실현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 대상은 수업을 신청한 광주·전남 31개 학교를 비롯해 서울 광성중, 경기 능서초, 경북 파천초, 부산 동평중·건국중, 전북 금평초 등 7개 지역 초·중학교 37개교 166개 학급이다.

교육 내용은 ▲시청각 교육을 통한 5·18민주화운동 바로 알기 ▲토론과 역할극을 통한 5·18민주화운동 인지하기 ▲5·18민주화운동 참여자의 구술 증언을 통한 간접 체험하기 ▲퀴즈대회 등 놀이학습을 통한 5·18민주화운동 이해하기 등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